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의 한국 단위 신설 과정, 단원 내용, 그리고 시사점*

서민철**

The Creating Process, the Content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South Korea Unit in the World Geography Textbooks of Ukraine*

Min-Cheol Seo**

요약: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 소단원이 등재된 과정과, 소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8월, 지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0학년 세계지리 과목의 교과서에 벨로루시를 제외시키고 대신 한국을 편입하여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 과정에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노력이 주효하였다. 여기에는 해당 유관 기관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관여하였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이 갖추어졌다. 그리하여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는 2021년 가을부터 시작한 준비 과정을 통해, 2022년 교육과정 개선을 이끌어 내고, 이듬해 5월 건본 교과서 발간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다. 새 교과서의 한국지리 내용은 주로 한국의 발전상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개선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 한국 소단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som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rocess by which Korean subunits were listed in Ukraine's 10th grade world geography textbook and the contents of the subunits. In August 2022, Ukraine revised its geography curriculum and partially changed the contents by excluding Belarus from the textbook for the 10th grade world geography subject and incorporating Korea instead. The efforts of key stakeholders, including the Korean Embassy in Ukraine and the Korean Education Center in Ukraine, were effective in this process.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were also involved. From Ukraine's perspective, while the pro-Western policy was being pursued, the war with Russia broke out, and the Korean government's promise to support Ukraine resulted in a favorable response to Korea. Thus, through the preparation process that began in the fall of 2021, improvements to the curriculum for 2022 were led, and sample textbooks were published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The Korean geography content in the new textbook is mainly focused on Korea's development, but it appears that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new content through an improvement process in the future.

Key words: Ukraine, world geography textbook, Korea unit, Ukraine-Russia war

*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님과 김경탁 오정중학교 교장선생님(전임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장)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eomn@kice.re.kr

I. 서론

최근 우크라이나(Ukraine, Україна)에서 10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 소단원이 포함되었고 그 견본 교과서까지 발간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내의 주요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중등학교 교과서에 실게 되었다며 환호하는 언론 보도로 쏟아졌다(조선일보, 2022.9.20.; 연합뉴스, 2022.9.20.; 동아일보, 2022.9.20.; 헤럴드경제, 2022.9.20.; 한국경제, 2022.9.20.; MK뉴스, 2022.9.20.; SBS, 2022.9.20.; 동아일보, 2022.9.21.; 동아일보, 2022.11.23.; 조선일보, 2023.5.20.; 연합뉴스, 2023.5.21.; 중앙일보, 2023.5.21.; 조선일보, 2023.5.22.; 아시아경제, 2023.8.8. 등). 기사의 동향은 크게 2022년 가을과 2023년 봄 시즌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시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교과서 발간 기준, 이른바 “가이드라인(guideline)”에 한국 관련 내용을 교과서들이 서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시기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듬해인 2023년 5월 교과서 시제품이 발간되었다는 기사들이다.¹⁾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실렸고,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후에 일어선 한국의 경험이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내용을 실게 되었다는 보도였다(표 1).

실제로 필자가 입수한 두 권의 교과서(Boiko B. et al., 2023, ГЕОГРАФІЯ; С. Г. Кобернік et al., 2023, ГЕОГРАФІЯ)에는 한국의 발전상이 실려있다. 발전상의 내용은, 식민지 경험을 딛고 2차대전 후 독립한 한국은 분단과 전쟁을 겪고 낮음에도 불과 20여년 만에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G-20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다소 스테레오타입의 성공 스토리이다. 여기에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삼성, LG, 현대, 기아 등), 한국의 수출 주력 분야(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급격한 도시화(서울, 부산, 인천 등)와 인구 고령화 등을 소개하며,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화를 곁들이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이루어져, 새로 발간된 교과서가 배포된다면, 우크라이나의 고등학생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진 한국 지리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리”가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일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지리”라는 키워드가 주요 언론을 긍정적인 뜻에서 장식하게 된 셈이다. 통상 지리교육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지리의 위상을 제고하려 하거나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에서의 지리 교과목의 지위를 확인하는데 관심이 있으나, 다른 나라의 지리 교육과정에 한국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다른 나라의 지리 교과서 혹은 사회과목들의 교과서에서 한국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지리 교과서에 한국지리 관련 내용이 어떻게 실려있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총 6건 정도가 확인된다(오진환, 1980; 권태룡, 1991; 손용택 외, 1999; 2002; 손용택, 2002; 안지영 외, 2012; 정재윤, 2016). 가장 이른 연구는 1980년 오진환의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 시정 사업”으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 잡지의 7쪽 짜리 단보이다. 1975년부터 있었던 외국 교과서의 한국 서술에 대한 시정 요청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과 향후의 계획을 수록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이 낮았던 시기의 외교적 사업을 보고한 것이다. 권태룡(1991)의 연구 역시 그 연장선상의 것이며 한국을 너무 가난한 후진국이나 식민지 정도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이 손용택·정영순(1999)의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를 중심으로”와 손용택·정영순(2002)의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교과서를 통한 국제 이해: 양국의 역사,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라는 20여년 전의 두 논문과 최근의 정재윤(2016)의 “외국 교과서 내용 분석에 기반한 한국 이해 자료 개발 연구”이다. 즉 인도네시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의 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이 대략 20여년 전에 존재했고, 그 후로는 해외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가 2016년 한국에 대한 국제 이해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주요 외국(영국, 독일, 프랑스)의 교과서에서 한국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교육학 쪽에서 제출된 2016년의 논문을 제외하면, 해외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해외의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실리는 정도나 분량 등은 우리나라 자신의 국제적 위상

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20여년전의 연구에서 전술한 몇몇 나라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 관련 서술은 오류가 있거나(“일본해” 표기 등), 부정적인 내용 중심이거나(식민지나 한국전쟁 경험), 간략하게 서술(신흥공업국 중 하나)하는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손용택 외, 200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20년 전에 비해 상당히 상승되었으므로,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사소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해외 지리 교과서에서의 한국 관련 서술은 분량이나 내용상의 중요도에서 높아져야 하는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기존의 주요 국가에서 한국 관련 서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관련 서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상적인 내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연구가 2016년의 정재운(2016)의 연구인 것이다. 정재운(2016)의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한국 관련 서술 내용 분석이 나오는데, 해당 국가들에서 한국의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위상 상승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서술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게 나오고, 역사 부분에서는 한국전쟁과 식민지 경험을 강조하는 것 등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재운, 2016).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해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위상이 낮은 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증대하면서, 외국 교과서에 한국이 긍정적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한참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해외 교과서에 한국 단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형편인데, 한국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경우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의 한국 단원 신설 사건은 해외 교과서에서의 한국지리 내용에대한 연구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교과서에 한국지리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어떻게 싣도록 할 것인가는 지리교육이 마땅히 포괄해야 하는 연구 주제 중 하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 단원이 등재된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다른 나라의 지리 교과서에 한국 단원이 실리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실리게 되는 내용상의 개선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수행된 방법은 주요 행위자 면담과 교과서 텍스트 분석이다. 전자는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 단원이 실리게 된 정책에 기여한 주요 행위자들, 특히 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교육부 주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유관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요 행위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문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법은 새로 개정된 새 교과서 4종 중 입수 가능한 3종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지리교육학계가 해외 지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실리도록 하는 정책적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질 것이다.

II. 한국 단원의 등재 과정

1. 언론 보도와 주요 행위자

언론 보도를 요약한 분석을 통해, 주요 행위자와 사건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언론 보도는 크게 2022년 9월 20일을 전후하여 보도되고 있으며, 이 시점은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가 10학년 세계지리 및 11학년 역사 교과서의 서술 가이드라인(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와 유사함)을 일부 개정하여 한국 관련 단원을 기재하도록 수정 공고한 것(우크라이나 시간으로는 9월 18일이다)을 계기로 한 것이다.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이를 9월 20일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국내 주요 언론이 대서특필한 것이다(표 1). 즉 여기서 주요 행위자는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과 우크라이나의 교육과학부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2022년 11월의 기사(동아일보 2022. 11.23)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6년부터의 노력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는 두 번째 시기는 2023년 5월 20일 즈음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교과서 전본이 발행되

표 1.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한국 단위 등재 언론 보도 요약

언론사	기자	일자	헤드라인과 본문 내용 요약	분류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 (런던)	2022.9.20.	국가재건 시동 전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심는다 -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 실기로 함 - 주우크라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가 세계지리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서술 지침(가이드라인)을 변경 공지했다고 발표.	교육과정 부분 개정 사실 보도
연합뉴스	조성홍	2022.9.20.	국가재건 앞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심는다 - 주우크라 대사관에 따르면 세계지리10학년, 세계사11학년 교과서 가이드라인 변경, 홈페이지 공지(우크라교육과학부) - 세르히슈칼렛 우크라 교육과학부장관과 김형태 주우크라 대사의 사진(우크라 대사관 제공)	
동아일보	조은아 특파원 (파리)	2022.9.20.	“한국에게 배울 것”...재건 앞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심는다 - 20일 주우크라 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 교육과학부는 한국 발전상을 교과서에 심도록 세계지리 10학년 세계사 11학년 교과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변경 공지함.	
헤럴드 경제		2022.9.20.	“전쟁 폐허 재건 노후우 배울 것”...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린다 - 우크라이나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중국, 인도, 일본만 있다가, 새 가이드라인에 한국 포함 세계지리 10학년 가이드라인에 한국 항목, 그리고 주요 도시로 부산을 다루도록 함. 세계사 11학년 가이드라인에 한국의 발전상과 민주화 경제성장 내용 추가함.	
한국경제	신현보	2022.9.20.	“한국한테 배우겠다”...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린다 - 주우크라 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 교육과학부는 한국의 발전상을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변경 공지함.	
MK뉴스		2022.9.20.	국가 재건 앞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심는다 - 20일 주 우크라 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한국의 발전상 포함하도록 변경 공지함.	
SBS	정반석	2022.9.20.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심는다 - 우크라 교육과학부는 한국의 발전상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변경 공지	배경 기사 취재
동아일보	조은아 특파원 (파리)	2022.9.21.	우크라, 교교 과파서에 ‘한강의 기적’ 심는다 - 주우크라 대사관에 따르면 20일 우크라 교육과학부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변경 공지. 세지 10학년 세계사 11학년. 2023년 9월 가을학기부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과서 수업 활용할 것.	
동아일보	최훈진	2022.11.23.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렸다 -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와 함께 협력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기홍 전문위원의 노력. -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의 2016년 로만 홀라드코프스키 수석연구위원과 협력 방안 논의한 것이 계기	
조선일보	정철환 특 (카이우)	2023.5.20.	“피비린내 나는 전쟁 거친 남북한, 경제 사회발전 완전히 갈라졌다” -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에 한국 단위 게재된 교과서 입수하여 내용 요약 서술함.	
연합뉴스	조성홍 특파원 (이스탄불)	2023.5.21.	‘한강의 기적’ 실은 우크라 세계지리 교과서 4종 첫 출간 -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개최 3차 라운드 테이블 - 21일 세계지리 10학년 교과서 4종 출간.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교과서 채택 및 발간 및 교과서 1종 내용 소개.	
중앙일보	한예슬	2023.5.21.	한국 ‘한강의 기적’ 9쪽 담겼다...우크라 세계지리 교과서 출간 - 21일 주우크라대사관에 따르면 세계지리 10학년 교과서 4종 출간. 우크라 현대화연구소의 교과서 적격심사와 현지 교사 투표 마무리하고 18일 채택 및 발간됨.	전본 교과서 발간 사실 보도
조선일보	김동현	2023.5.22.	재건 꿈꾸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었다 - 한국 단위 실린 교과서 출간됨.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세계지리 10학년 교과서 4종이 18일 현대화연구소의 적격심사와 교사들의 투표를 거쳐 정식 채택 및 발간.	
아시아 경제	여보라	2023.8.8.	러, 새교과서 ‘정당한 전쟁’ 주장...우크라는 ‘한강의 기적’ 답아 - 러시아 새교과서 소개하고, 우크라이나는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 게재함. 주우크라 대사관은 지난해 9월 20일, 교과서 서술지침을 변경함 공지	

었으며, 이미 우크라이나 현대화연구소라는 기관이 주도하는 심사를 거쳤으며, 한국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다만, 발간된 것은 견본으로서, 대량생산을 통해 현장에 배포되기 전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다(조선일보, 2023.5.22). 여기서 주요 행위자로 교과서 발간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현대화연구소가 새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교부 산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주요 역할을 하였고, 그 대상 파트너는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담당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 기관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우크라이나측 협력 기관으로 현대화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행위자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거론된 담당자들을 추적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부터 주요 행위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실의 A위원은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의 흘라드코프스키 로만(Hladkovskyi Roman) 수석 연구원과 접촉하면서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이 실리는 일을 시작했고, 그후에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관련 시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금은 2021년 가을부터 갑작스럽게 외교부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사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류의 영향이 높은 우크라이나의 담당자와 꾸준히 진행해오던 일이었다(2024년 3월 5일 오후 3시 A전문위원).

그러던 것이 2021년 6월 새로 부임한 주우크라이나 대사(B대사)의 추진 하에 그 해 가을부터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현대화연구소, 기존 교과서 저자들과의 원탁회의(2021년 10월 28일)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에 한국지리 관련 내용 요약을 제공하여 이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새로 개정된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자료 1).

우크라이나 부임 전부터 업무 목록에는 교과서 문제가 있었고, 부임 후에 교과서 현안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우크라이나 교과서들에 한국 관련 사실들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루면서 한국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교육원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관계자, 우크라이나 현대화연구소, 주요 출판사의 지리교과서 저자들을 초청하는 원탁회의를 요청하였고, 이 원탁회의(2021년 10.28)를 통해 교과서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성장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청소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교과서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겁고 적극적이어서, 저는 이 정책을 확신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부와 우크라이나 현대화연구소에서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새로 교과서 견본을 만들었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에 소단원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와중에 이루어진 일로서,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및 현대화연구소, 그리고 저자 및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서면 인터뷰, 2024.3.30).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의 한국 단원 등재는 우리 외교 당국의 노력,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우리 정부의 친우크라이나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2022년 10월의 교과서 가이드라인의 일부 개정 공고를 통해 현실화된 것이다(표 2와 3). 이러한 사실은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을 통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듬해 5월 새로운 교과서 견본 발간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제반 과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의 C 원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2021년 새로 부임한 대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협력 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를 통해,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에 등재할 한국지리 내용, 그리고 관련 교육과정 서술에 대해서 내용 작성을 협조받았고, 1차, 2차에 걸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과의 원탁 회의를 통해 우리의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이죠(2024년 3월 6일 오후 2시 C원장).

결과적으로, 한국측의 노력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주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교육부 산하 재외 교민을 위한 기관)의 주도하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우크라이나의 개정된 교육과정 아시아 부분 1(한국 사항에 밑줄, Міністерства освіти і науки України, 2022.8.3)

3.	11	III부. 아시아	
3.1	5	주제1. 아시아의 일반적 특징	
		지식 요소: 요청: 지역의 구성 사례 제시: 아시아 국가들을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분류 지도 제시: - 하위 지역(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 아시아 국가들(중국, 인도, 일본, 이스라엘, <u>한국</u>,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몰디브, 베트남, 북한, 아프가니스탄) - 석유와 천연가스 지역(페르시아만, 중앙아시아, 순다열도) - 석탄 지역(카자흐스탄, 중국 북서부, 동인도, 철광 지역(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구리 지역(카자흐스탄, 몽골, 이란), 주석 지역(중국, 말레이시아), 텅스텐 지역(중국). - 대규모 공업 지역(일본 태평양 연안, 중국 북동부, 인도의 루르) - 아시아의 세계도시(홍콩, 주장강삼각주, 도쿄, 상하이, 두바이, 베이징, 뭌바이, <u>서울</u>, 뉴델리, 이스탄불, 방콕) - 메가시티(도카이도, 양쯔강 델타, 홍콩-주장강삼각주) - 대규모 항구(싱가폴, 닝보-저우산, 상하이, 홍콩/심양, 부산, 나고야, 오사카, 도쿄, 가오슝, 뭌바이) - 허브 공항(북경, 도쿄, 선양, 자카르타, 두바이, 방콕, 싱가포르, 광저우, 상하이, 이스탄불) - 아시아 금융 센터(싱가폴, 홍콩-선양, 도쿄, <u>서울</u>, 두바이, 상하이) 활동 요소 - 특성: 아시아 나라들의 인구, 도시화, 인구 분포상의 특징 - 설명: 국가간 갈등의 등장 - 비교: 자원, 노동 잠재력, 경제 수준 - 정당화: 주제를 사용하여, 광물 자원의 주요 지역, 제조업의 입지, 농업 특화 지역을 지도화 평가 - 아시아의 경제적 불균등 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 국제적인 노동 분업의 지리에 있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초국적 기업과 세계화의 영향은 무엇인가? - 여러 지역의 국가간 갈등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의 사례를 들라	아시아의 경제적, 지리적 특징 지역의 구성 아시아의 현대 정치 지도 아시아 나라의 국가 형태 및 영토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 발전 상황 아시아의 국제 조직(ASEAN, 아랍국가 연합) 영토를 둘러싼 국가 갈등 지역 지역별 자연 자원 인구, 도시화, 세계도시, 도시 집적지 일본과 중국의 메트로폴리스 노동 잠재력 국가별 특징 1차 산업(농업, 임업, 광업) 2차 산업(제조업 중심지) 3차 산업 국제 운송 회랑과 결절지 국제 노동 분업에서의 불균등 발전 우크라이나와 아시아 국가들의 연관

2. 우크라이나 측의 필요와 정책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어떤 필요가 있었을 까? 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의 현재 상황과 필요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면담에 응한 A위원, B대사, C

원장은 이구동성으로, 우크라이나측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가장 먼저는 우크라이나 측의 필요가 가장 컸죠. 러시아로

표 3. 우크라이나의 개정된 교육과정 아시아 부분 2(한국 사항에 밑줄, Міністерства освіти і науки України, 2022.8.3)

3.2	6	주제 2. 아시아의 여러 나라
		지식 요소: 요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주요 요소 구별: 도시화의 “수준” 개념과 도시화의 “국면” 개념 사례 제시: 각 국가들의 산업 제품 및 서비스 지도화: 주요 대도시, 세계도시, 산업 지역, 테크노폴, 대규모 항구, 공항, 금융 센터, 관광지 활동 요소 - 분석: 아시아 나라들의 인구 변동, 성별 연령별 구조 - 프로젝트: 인구와 노동 잠재력, - 검토: 각 나라들의 자원 - 사례: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의 경제지리 - 발견과 체계화: 일본, 중국, 한국에 대한 나라별 특징 규명에 필요한 필수 정보, 통계 정보 선별, 그래프와 도표 작성 및 분석. - 활용: 주제도 활용하여 취락, 제품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입지를 도시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를 측정하고, 세계와 지역에서 해당 장소들을 규명한다. - 비교: 일본, 중국, 인도, <u>한국</u>의 국제적 특화: 촌락 지역의 농업과 주요 공업 지역의 특징 설명. - 특징: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구조 - 특징: 일본과 <u>한국</u>의 주요 수출 방향과 기술 평가 - 결론 도출: 중국, 일본, 인도, <u>한국</u>의 각 지역의 불균등 발전의 원인 설명 - 비교: 일본, 중국, 인도, <u>한국</u>의 경제 및 문화 세계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들을 비교 - 검토: 각 나라의 발전에서 제도와 시민사회의 역할 검토 - 자기 주장: 우크라이나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상호 협력 전망에 대한 주장 일본: - 세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 국제 노동분업에서의 이 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 취락 체계. - 현대 후기산업 사회의 발전상: 국제적인 특화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3차산업 및 제조업 부문. 농업에서의 전통과 기술, 교통 체계, 태평양 산업 지구, 네트워크 테크노파크와 테크노폴, 대외적 경제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중국: - 세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 국제 노동분업에서의 이 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 취락 체계. - 수출지향적 경제, 특히 1차 및 2차 부문에서의 생산 시설 발전. 3차 산업 부문에서의 지배적인 특징. 경제의 공간 조직. 경제특구. 대외 경제 관계,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인도: - 세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 국제 노동분업에서의 이 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 취락 체계. -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 구조 특징. 촌락 지역의 경제 특화. 광물 자원 채굴업. 국제 특화 제조업. 3차 산업에서의 특성. 농촌의 공간 조직. 대외 경제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국제 관계. 한국: - <u>세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 국제 노동분업에서의 이 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 취락 체계.</u> <u>수출 지향 경제 발전 모델. 지배적인 3차 산업 부문. 국제적 특화 부문을 결정하는 생산 부문, 대외 경제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국제 관계.</u> 실제 활동 4. 일본, 중국, 인도, <u>한국</u>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와 노동 잠재력 평가하기 연구 주제(학생 선택) 1. 규슈와 홋카이도: 일본에서의 대조 2. 중국 경제 시스템의 고유성 3. 인도의 “성장 회랑” 4. <u>한국 경제 발전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영향</u>

부터 탈피하고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련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죠(2024년 3월 5일 오후 3시 A전 문위원).

K-Pop 등 한류의 확산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어필하

는 바가 있었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겪고서도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이 주목되는 바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6일 오후 2시 C원장).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다. 이 사업이 시작될 때인 2021년 하반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측이 자료(교과서에 담길 내용, 교육과정 진술)를 제공하였고,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측의 교육과정 부분 개정(2022년 가을), 그리고 교과서 견본 출판(2023년 5월)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탈러시아,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재건 참여, 투자 등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한국지리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한 교육과정 중 10학년 세계지리 부분을 보면(표 2와 3), 우크라이나의 세계지리는 주로 지역지리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별로 단원이 설정된 후, 해당 대륙의 주요 국가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 대단원에서는 중국, 인도, 일본이 그동안 주로 다루어져 왔고, 한국은 다루어지지 않다가, 2022년의 부분 개정을 통해 한국이 등재되었고, 한국 소단원이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모델화하면 정책집행론의 하나인 Van Meter와 Horn의 정책집행 과정 모형(유훈, 2015, 129)에 적용한 그림 1과 같다.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그리고 그 산하 기관인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에서 주도한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 등재라는 정책은, 우리나라

에 대한 대외 홍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자원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교과서에 등재될 한국 단원의 샘플을 만들고,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우크라이나 교육부와 현대화연구소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조율하는 하나의 목표하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는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사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을 등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10학년 교과서에 한국 소단원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조선일보, 2023.5.22; 연합뉴스, 2023.5.21; 중앙일보, 2023.5.21; 아시아경제, 2023.8.8). 주목해볼 사항은, 전쟁 전인 2021년 10월의 1차 원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에게 한국 등재를 촉구한 이후, 이듬해 2월 전쟁 발발과,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 그리고 친 우크라이나 정책 추진에 따른 2022년 10월의 교육과정 부분 개정과, 뒤이은 견본 교과서 발간(2023년 5월)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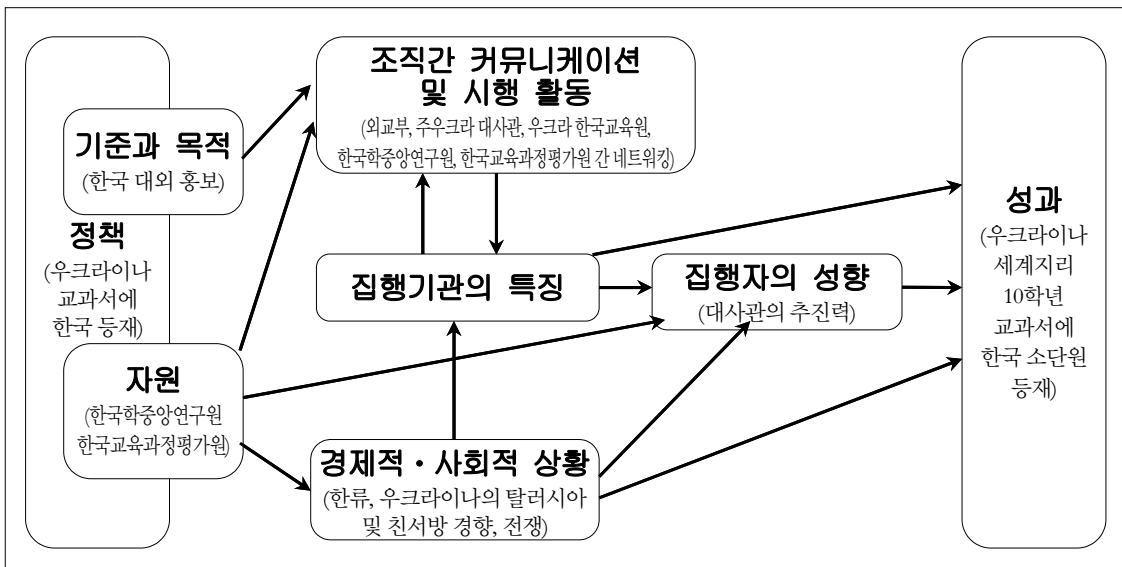


그림 1. 반 미터와 혼의 정책집행 모형에 적용한 우크라이나 교과서 한국 등재 정책의 흐름(유훈, 2015, 129)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 3회 한-우크라이나 원탁회의의 자료집에 실려있는 우크라이나측 주요 인사들의 발표 원고로부터 간접적으로 확인된다(주우크라이나대사관, 2023.5.19.). 2023년 5월 19일 개최된 제 3회 한국-우크라이나 교과서 협력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에는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및 현대화연구소 담당자 9명과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 저자 9명이 참석하였고, 이 중 6명이 발표하였다(주우크라이나대사관, 2023.5.19.). 특히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의 안드레이 도브간(Andriy Dovgan) 과학·수학과장은 교육과정 개정 전반을 개관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오늘날의 지정학적 실제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 및 대서양 지향적인 방향에 따라, 2022년 교육과학부는 학술 및 교육 관련 전문가 그룹을 출범시켜 여러 주제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결과이며, 6학년에서 11학년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안입니다(주우크라이나 대사관, 2023.5.19.).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의 교육과정 개정 책임자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와의 전쟁, 현재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지향이 교육과정 개정을 촉발했고, 교과서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립대의 세르게이 코베르니크(Sergey Kobernik) 교수의 언급에는 10학년 세계지리에 한국 소단원이 편입되게 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22년 8월에 있었던 10학년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세계지리의 제 2부인 아시아의 지리에서, 기존에 일본, 중국, 인도만을 다루던 것에서, 한국을 다루게 되었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데, 1950년대에 북한과의 전쟁으로 초래된 폐허



그림 2. 현재 입수한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개정 교과서 건본 2종(필자 촬영, 2024.4.12.)

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경험은 우리의 회복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주우크라이나 대사관, 2023.5.19.).

이렇게 2021년 가을에 첫 원탁회의를 통해, 한국 단원의 신설을 요청한 후, 2022년 2월의 개전과, 한국 정부의 지원 약속 등에 힘입어 2022년 가을 교육과정의 개정, 그리고 이듬해 5월의 교과서 개정 건본의 소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2023년 5월에 새 교과서가 4개의 출판사에서 4종의 서책으로 최종 출간되었지만, 전쟁 상황으로 인해 건본 교과서만 출간되었고, 대량 생산되어 현장에 보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나라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2023.5.21.; 연합뉴스, 2022.9.20.). 현재 필자는 4종의 교과서 중 2종(코베르니크 교수 등의 저작과 보이코 등의 저작)만 확보하고 있다(그림 2). 나아가 다른 2종의 교과서는 현재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국내 외교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인사들 어느 누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2024년 3월 인터뷰 당시까지).

III. 한국 단원의 위상과 내용

1. 한국 소단원의 위상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국 단원은 11학년 역사에서처럼 본문 속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소단원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기존의 아시아 대단원(Chapter)에서 각국을 소개하는 두 번째 중단원 중 한 소단원으로 일본, 중국, 인도와 더불어 편입된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대단원에서 벨로루시를 삭제하면서 이루어진 일로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 2종(Бойко *et al.*, 2023; Кобернік *et al.*, 2023)의 목차 구조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는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개정 교과서 4종 중 입수 가능한 2개(그리고 이 두 종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의 목차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의 단위 구분은 가장 큰 구분이 “РОЗДІЛ”(로즈달)인데, 우리 말의 부(Part)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장(Chapter)으로 번역하였다. 우리 교과서 체계에서는 통상 “대단

원”에 해당하며, 그 아래에 “Тема”(테마), 즉 주제1, 주제2가 있다. 대단원은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같이 대륙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제1은 각 대륙에서 대륙 전체의 특성을 서술하는 중단원에 해당하고, 주제2는 그 대륙 안의 여러 나라 중 주요한 나라를 서술하는 중단원이다. 한국에 대한 서술은, 아시아 대단원의 주제2 중단원의 한 소단원으로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표 4). 맨 처음 대단원은 서론에 해당하고, 맨 마지막 대단원은 세계속의 우크라이나 대단원을 따로 설정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고등학생들이 세계지리를 배우는 이유와 세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는 전형적인 교과서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두 종의 교과서의 목차 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크라이나의 교육과정이 어느 수준까지 통제하고, 어느 수준에서 자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단원과 중단원은 매우 통일적이고, 열거되는 국가와 주요 주제들도 통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과거 교육과정에서처럼 교육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의 대륙별 구분을,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로 구분하고, 해당 대륙에서 학습해야 할 나라가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다. 즉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남아공 뿐이다. 이것은 각 대륙에서 경제적, 그리고 국제정치적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우선시함과 동시에 자국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인접 강대국이다. 유의할 것은 2018년에 벨로루시가 있었는데,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벨로루시를 삭제한 것이다. 벨로루시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할 뿐 아니라 매우 관계가 깊은 나라로서 다루어졌지만, 아시아에서 한국을 편입하면서 유럽에서 벨로루시를 삭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그 이유로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사라졌기 때문”(Довгань, Андрій, 2023.5.19.)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표 4.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개정 교과서 2종의 목차 구조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Бойко, 2023)	소단원(Ковернік, 2023)
	서론	§1. “지리: 지역과 나라들”은 무엇을 하는가? §2. 현대 세계 지도	§1. “지리: 지역과 나라들”은 무엇을 하는가? §2. 정치 지도
1장. 유럽	주제1. 유럽의 일반 특징	§3. 유럽의 지역들과 정치 및 지리 §4. 통합 과정과 국제기구 §5. 자연 조건과 자원 §6. 인구와 인구분포 §7. 경제 특성: 1차 부문 §8. 2차 산업 §9. 3차 산업	§3. 유럽의 현대 정치 지도 §4. 유럽의 통합 과정 §5. 자연 조건과 자원 §6. 유럽의 인구: 인구학적 과정 §7. 유럽의 인구 구조 및 도시화 과정 §8. 유럽의 경제 특성: 1차산업 §9. 2차 부문 §10. 3차 부문
	주제2. 유럽의 여러나라	§10. 독일 §11. 독일(계속) §12. 프랑스 §13. 영국 §14. 이탈리아 §15. 폴란드 §16. 러시아 §17. 러시아(계속)	§11. 독일: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12. 독일: 경제 발전 §13. 프랑스: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14. 프랑스: 경제 발전 §15. 영국: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16. 영국: 경제 발전 §17. 이탈리아 §18. 폴란드 §19. 러시아
2장. 아시아	주제1. 아시아의 일반 특징	§18. 아시아의 경제와 지리 §19. 아시아의 주요 지역 §20. 자연 조건과 자원 §21. 인구와 인구분포 §22. 경제 특성	§20. 아시아의 현대 정치 지도 §21. 자연조건, 자원과 인구 §22.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 특징 및 1차 산업 §23. 2차 부문 §24. 3차 부문 및 지역간 불균등발전
	주제2. 아시아의 여러나라	§23. 일본 §24. 일본(계속) §25. 중국 §26. 중국(계속) §27. 인도 §28. 한국 (РЕСПУБЛІКА КОРЕЯ)	§25. 일본: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26. 일본: 2차 및 3차 부문 §27. 중국: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28. 중국: 경제 발전 §29. 인도: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30. 인도: 경제 발전 §31. 한국 (РЕСПУБЛІКА КОРЕЯ)
3장. 오세아니아	주제1. 호주	§29. 호주 연방 §30. 호주 연방(계속)	§32. 호주: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33. 호주: 경제 발전
	주제2.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31.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34. 오세아니아의 섬나라들
4장. 아메리카	주제1. 아메리카의 일반 특징	§32. 아메리카의 주요 지역과 정치 및 지리 §33. 인구와 인구분포 §34. 경제적 특성	§35. 아메리카의 현대 정치 지도 §36. 자연 조건과 자원 및 인구 §37. 아메리카 여러나라의 경제, 1차 및 2차 산업 §38. 3차 부문과 아메리카의 지역적 불균등발전
	주제2. 아메리카의 여러나라	§35. 미국 §36. 미국(계속) §37. 캐나다 §38. 브라질	§39. 미국: 국제 노동분업과 취락 체계에서의 주요 요인 §40. 미국: 경제발전 §41. 캐나다 §42. 브라질
5장. 아프리카	주제1. 아프리카의 일반 특징	§39.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과 정치 및 지리 §40. 인구와 인구분포 §41. 경제 특성	§43. 아프리카의 현대 정치 지도 §44. 자연 조건과 자연자원, 그리고 인구. §45.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경제
	주제2. 아프리카 여러나라	§42. 이집트 §43. 남아프리카 공화국	§46. 이집트 §47. 남아프리카 공화국
6장. 세계속의 우크라이나	주제1. 우크라이나의 지정학	§44. 현대 세계 지도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위상	§48. 현대 세계의 지정학과 우크라이나
	주제2. 우크라이나의 국제 경제 관계	§45. 우크라이나의 국제 경제 관계	§49. 우크라이나의 국제 경제 관계

에서 벨로루시가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허승철, 2023, 281~283).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에서는 강대국 위주로 국가를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지정학적 강대국인 경우, 소단원을 두 개로 배치하여 강조하기도 하지만(보이코 저자의 경우,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어떤 나라를 더 많이 강조할 것인가는 교과서 저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 교과서 서술에서는 소단원에서의 특정 주제나 소재의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혹은 낮출 것인지에 대한 자율성이 있지만, 대단원과 중단원 구분이나, 어떤 주제나 소재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자율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대륙의 주제2에서 다루는 나라들이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과 동시에 자국과 매우 밀접한 나라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하면, 유럽에서는 스페인, 그리스, 북유럽 국가들을 다루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다루지 않으며,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나 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를 위시한 다

수의 나라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나라들로 우크라이나가 인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제2는 각 대륙에서 여러 나라들의 국가별 지도를 개관하고, 대륙 내 주요 지역을 거론한 후, 자연지리와 자연, 인구와 인구 분포, 경제적 특성(1차, 2차, 3차)을 개관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에 대해서는 다른 대륙에서와 달리, 유럽 통합 과정을 따로 소단원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교과서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륙의 국가별 지도, 주요 하위 지역, 자연조건, 자원, 인구, 산업의 순서로 다루는 방식은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세계지리 서술 방식이다.

2. 한국 서술 내용의 특징과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10학년 세계지리는 대단원-중단원-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단원 안에서는 소절의 표제가 단락의 맨 앞을 이끄는 형태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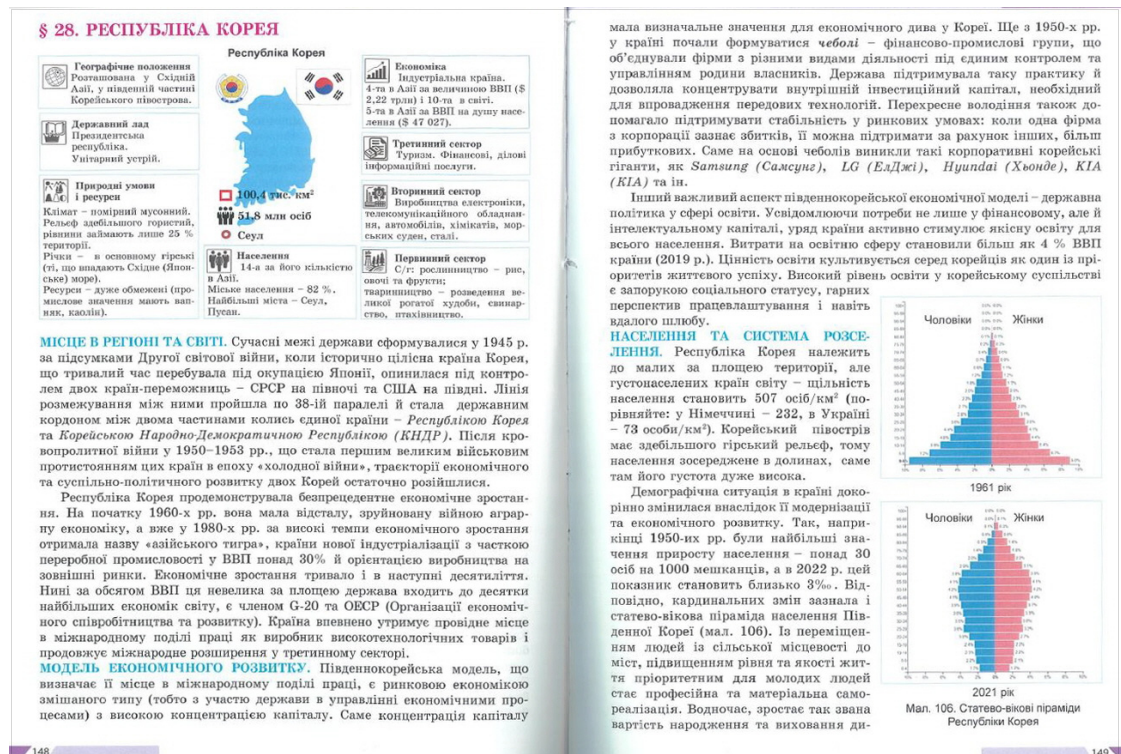


그림 3.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의 한국 소단원 첫 면(Boyko et al., 2023, 148–149)

면을 절약하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그림 3은 보이코(Boyko)를 대표 저자로 하는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의 한국 소단원(§ 28)의 첫 두 페이지인데, “РЕСПУБЛІКА КОРЕЯ”(레스푸블리카 코레야)라고 써 있는 곳이 소단원 표제이고, 그 아래 첫 단락을 이끄는 “МІСЦЕ В РЕГІОНІ ТА СВІТІ”(미스체 브 레기오 니 타 스비티, PLACE IN THE REGION AND WORLD)라고 써 있는 곳이 소절이다.

<부록>에는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개정 교과서 1종(보이코 대표저자)의 한국 소단원 서술 내용을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 즉 위치, 정체, 자연지리, 경제 요약, 인구,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개략을 싣고, 국기, 국토 모양, 국토 면적, 수도 등 기초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소절을 그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Boyko, 2023, 148-153).

- 지역적, 세계적 위상: 2차대전 후 독립, 분단과 한국 전쟁, 전례없는 성장, 신흥공업국,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 경제발전 모델: 혼합경제 자본주의, 재벌 대기업 체제, 정부주도적 경제발전, 복합기업적 비즈니스, 삼성, LG, 현대, 기아 체제, 교육정책의 기여
- 인구와 도시: 높은 인구밀도, 인구구조의 급변(피라미드에서 중형으로), 빠른 고령화, 단일민족적 경향, 거대도시화,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교통 및 통신의 중심지.
- 경제 전반: 천연자원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 성장, 수출주도 경제, 선진국.
- 3차 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 수출의 기여. K-드라마, K-팝, 한류, 금융, 통신, 보험 분야 발전. 교통 인프라 발달,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 2차 산업: 기계공업, 첨단 기술, 반도체, 전자제품, 통신장비,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수소차, 전기차, 첨단 무기 등 군사 장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1차 산업: 자원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텅스텐, 흑연, 고령토 농업은 주로 내수용.
- 국제 경제적 관계: 국제 경제적 선도 국가. 세계 10위 수출액. 수입액 세계 8위. 원료와 소재를 수입하여,

전자,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우크라이나와는 주로 한국에서 자동차, 가전,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수입한다. 최근 전쟁으로 무기 수입도 중요하다.

- 기타 특이 사항: 글상자 형태로 한류(K-wave) 소개하고, 또 다른 글상자 형태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소개.

그 외에도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로고를 그림 자료로 소개하여,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무역구조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요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대기업, 식민지 및 전쟁 경험에서 빠른 성장 등 잘 알려진, 혹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다른 한 종인 코베르니크 교수의 교과서도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교육과정의 통제적 특성 상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일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산업적 성장과 한류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재의 성과 중심의 서술에 머무르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한국을 교육과정에 편입하는 이유로, 한국적 전란 극복 모델에 치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극복의 이유로 교육 정책을 지목하는 의아한 진단을 서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의 요인을 분석할 때 흔히 등장하는 유교적 이념과 교육열 등속의 스테레오타입의 진단이 우크라이나 교과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22년 가을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이듬해 5월 견본 교과서를 내놓아야 하는 우크라이나 교과서 집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은 우크라이나에 한국 소단원의 교육이 정착된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개선의 방향은, 현재의 전란 극복 모델로서의 한국 이해라는 좁은 목적에서, 한국과 한국인 자체의 이해라는 보다 넓은 목적을 지향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영토 문제, 역사적 과정, 한민족의 성립과 동아시아 문순 지역의 미작 문화로서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한글의 창제와 전파 및 수용 과정, 식민주의와 극복의

과정, 국제경제적 질서 속에서의 경제성장의 과정, 수출 주도와 기술대체 과정, 지역 변화 과정, 이촌향도와 도시화, 인구 구성 변화 과정 등이 조금씩 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 단원이 소단원으로 편입된 사건은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어야 할 모델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지리에 대한 소단원 서술이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리학자들과 지리교육학자들이 세계 각국의 세계지리 교과서에, 3쪽 분량, 5쪽 분량, 혹은 최대 10쪽 분량으로 실릴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서술 표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외 대사관과 한국교육원에 해당 표본을 제시하고, 현지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이 서술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 소단원이 편입된 과정과, 해당 소단원 내용을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의 교과서에 한국지리 내용이 소개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한국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기여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에 한국 단원이 실리게 된 배경에는, 1990년대부터 있어온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이 있지만, 최근 급격히 성장된 배경에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한국교육원 등 주요 담당자들의 노력과,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이 맞물려 이룩된 것이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적, 대외적 위상 제고가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해외 교과서에 한국지리가 실리는 것은, 꾸준히 추구하여 다른 여러 나라들에 확산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위해서는 해외 교과서에 실릴 한국지리 내용을 미리 다양한 분량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술한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인상과 국제통계상 드러나는 한국에 대한 숫자들,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하여 교과서에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일면이거나 혹은 잘 알려진 선입견들, 또는 한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등이 적절히 혼합되어 실려지는 것일 개연성이 크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분량, 즉 주로 10쪽 이내 분량으로 한국지리에 대한 콘텐츠를 지리학자와 지리교육학자들이 협력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그러나 주지하듯이,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으로, 해외로부터의 지원이 주로 전쟁 수행에 쓰이는 까닭에, 교육을 위한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새로 개발된 교과서는 양산되지 못하여 학교 현장은 여전히 기존 교과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우크라이나의 학제는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5~9학년), 고등학교(11~12학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기간이 짧고 중학교 기간이 길다. 이 중 “지리” 과목은 10학년에서 주당 1.5시간, 11학년에서 주당 1시간으로 필수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10학년에서 배우는 것이 “지리: 지역과 국가들”로서 세계지리이다(Міністерством освіти і науки України,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22.8.3., 2).

참고문헌

〈논문〉

- 손용택·정영순, 1999,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 32, 427-447.
- 손용택·정영순, 2002,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교과서를 통한 국제 이해: 양국의 역사,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 41(2), 139-161.
- 유훈, 2015, 정책집행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정재윤, 2016, 외국 교과서 내용 분석에 기반한 한국 이해 자료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승철, 2023, “러시아-벨라루스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80, 281-307.

〈자료: 회의자료, 공문, 교과서〉

-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2023.5.19, 제3회 한국-우크라이나 교과서 협력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2023.5.21, 제3차 한-우 교과

- 서 협력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최 결과(대외비 해제 2023.12.31.).
- Бойко, В. М., Ю. С. Брайчевський & Б. П. Яценко, 2023, *ГЕОГРАФІЯ*, Київ: Перун.
- Довгань, Андрій(Dovgan, Andriy), 2023.5.19, Оновлення навчальних програм з географії для 6-9 та 10-11 класів (Update of geography curricula for grades 6-9 and 10-11),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2023.5.19, 제 3회 한국-우크라이나 교과서 협력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 Кобернік, С. Г. and Р. Р. Коваленко, 2023, *ГЕОГРАФІЯ*, Кам'янець-Подільський: Абетка.
- Міністерства освіти і науки України, 2022.8.3, *ГЕОГРАФІЯ*, 10-11 grades, Standard level, № 698.
- 〈언론 보도〉
- MK뉴스, 2022.9.20., “국가재건 앞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신는다”(https://www.mk.co.kr/news/world/10460755)
- SBS, 2022.9.20.,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신는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02435)
- 동아일보, 2022.11.23.,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렸다”(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21123/116632035/1)
- 동아일보, 2022.9.20., ““한국에게 배울 것”...재건 앞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신는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920/115546544/1)
- 동아일보, 2022.9.21., “우크라, 고교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신는다”(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20921/115551160/1)
- 아시아경제, 2023.8.8., “러, 새교과서 ‘정당한 전쟁’ 주장..우크라는 ‘한강의 기적’ 담야”(https://v.daum.net/v/20230808170516282)
- 연합뉴스, 2022.9.20., “국가재건 앞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신는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919159900108)
- 연합뉴스, 2023.5.21., ““한강의 기적’ 실은 우크라 세계지리 교과서 4종 첫 출간”(https://www.yna.co.kr/view/

- AKR20230521043400108)
- 조선일보, 2022.9.20., “국가재건 시동 건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신는다”(https://www.chosun.com/XBZPBW7EJVHK7LVA6EL66KWTFU/)
- 조선일보, 2023.5.20., ““피비린내 나는 전쟁 거친 남북한, 경제 사회발전 완전히 갈라졌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5/26/ZBKM2D6KPZGUKZUV63AI27NLY/#:~:text=%EB%83%89%EC%A0%84%20%EC%8B%9C%EB%8C%80%20%EC%B2%AB%20%EB%B2%88%EC%A7%B8%20%EA%B5%B0%EC%82%AC%EC%A0%81,%EB%82%99%ED%9B%84%ED%95%9C%20%EB%86%8D%EC%97%85%20%EA%B2%BD%EC%A0%9C%EA%B5%AD%EC%9D%B4%EC%97%88%EB%8B%A4.)
- 조선일보, 2023.5.22., “재건 꿈꾸는 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5/21/MQRFNBUSJRDEHNQUYPNQRW6RWQ/)
- 중앙일보, 2023.5.21., “한국 ‘한강의 기적’ 9쪽 담겼다...우크라 세계지리 교과서 출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031#home)
- 한국경제, 2022.9.20., ““한국한테 배우겠다”..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린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2013667)
- 헤럴드경제, 2022.9.20., ““전쟁 폐허 재건 노하우 배울 것”...우크라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실린다”(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920000390)

접 수 일 : 2024. 04. 13

수 정 일 : 2024. 05. 17

게재확정일 : 2024. 05. 18

교신: 서민철,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4로 20 1010-1702호(seomn@kice.re.kr, 010-8374-9289)

Correspondence: Min-Cheol Seo, seomn@kice.re.kr

부 록

[Boiko, V. M., Ю. С. Брайтчевський & Б. П. Яценко, 2023, ГЕОГРАФІЯ, Київ: Перун. 의 한국 부분]

[부록 3]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한국 소단원 서술 내용: 보이코(pp. 148-153).

§ 28. 한국

지리적 위치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동
아시아 국가

국가 체제
대통령제 공화국, 단일 국
가

자연요건과 자원
열대 몬순 기후 국가이다.
영토의 대부분은 산악이고
평지는 영토의 25%를 차지
한다. 대부분의 강은 산맥
에서 발원하여 동해(일본
해)로 흘러간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석회석과 고령
토가 산업적으로 의미 있
다.



인구
아시아 국가 중 14번째로 인
구가 많은 국가이다. 82%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가
장 큰 도시는 서울, 부산이
다.

경제
산업 국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은 2
조2200억 달러로 아시아 기준
4위, 세계 기준 10위이다. 1인
당 GDP는 아시아 국가 중 5위
를 기록하고 있다 (47,027달
러).

제3차 산업
관광, 금융, 사업과 정보 서비
스

제2차 산업
전자제품, 통신 장비, 자동차,
화학 약품, 선박, 철강 생산

제1차 산업
농업(쌀, 채소 및 과일 생산),
축산업(소 사육, 돼지고기와 닭
고기)

지역적, 세계적 위상.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오랫동안 일본에 합병되어 있었던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이남지역은 미국이 이북지역은 소련이 각기 통치하게 되었으며,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분단되었다. 냉전체제의 결과로 1950년에 양국간의 첫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3년 간의 전쟁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방향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은 전후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1960년대만 해도 기간산업이 붕괴되어 경제 상황이 어려운 한국은 1980년대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제조업이 GDP의 30% 이상 차지하는 수출 지향적 신흥경제공업국이 되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GDP 규모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였다. G-20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한국은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3차 서비스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경제 발전 모델. 대한민국의 국제 분업 역할을 결정하는 경제 발전 모델은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자본축적 혼합경제이다. 특히, 자본 축적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50년대부터 재벌이라는 가족 또는 동일 혈족이 지배하는 대규모 복합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 하에 자본 축적 덕분에 경제발전을 주도하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복합기업 사업 형식은 시장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즉, 복합기업 내의 회사 하나가 손실을 입을 때, 더 수익성이 높은 다른 회사들의 비용으로 분담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재벌기업은 삼성, LG, 현대, KIA 등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다. 나라 발전을 위해 금융

자본만이 아닌 지적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민국은 GDP의 4%에 상응하는 부분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인들은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사회적 지위와 좋은 직장 취직 그리고 결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구와 도시. 대한민국은 면적은 작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평균인구 밀도가 507명/km² 이다 (비교해보세요: 독일 - 232명/km², 우크라이나 - 73명/km²). 한반도의 영토 대부분은 산악지형이라 인구밀도가 더 높다.

대한민국은 현대화와 경제 발전의 결과로 인구구성비가 많이 바뀌었다. 1950년대 한국 인구 증가율은 1000명당 30명 증가로 높았으나 2022년 기준으로 인구 증가율이 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인구의 성과 연령 피라미드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림 106). 이혼향도와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젊은 세대에게 일과 보상을 통한 자아실현은 우선 사항이 되었다. 동시에 출산과 육아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출산을 저하와 의료보험 제도 발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분포는 고령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은 96%가 한국인일 정도로 민족적 순도가 높은 편이다.

높은 인구밀도와 산업화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도시화도 극히 발전되어 거대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광역시는 도와 함께 행정구역상의 자치단체의 역할을 한다 (그림 107).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11개가 있으며,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이다(인구 1,000만 명).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

부산, 인천, 대구 등도 인구 백만 명 넘는 큰 도시들이다. 현대 한국 도시들은 최첨단 고층 건물, 발전된 교통 인프라, 사회기반시설과 통신 기술을 갖춘 세계 산업화 중심지이다.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증명하는 한국 도시의 흥미로운 특징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장과 상점의 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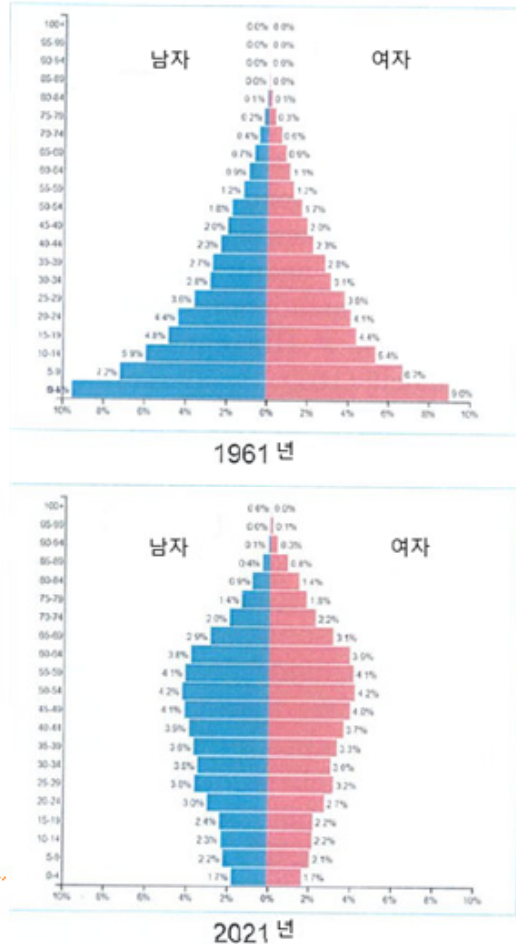


그림 106.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 (202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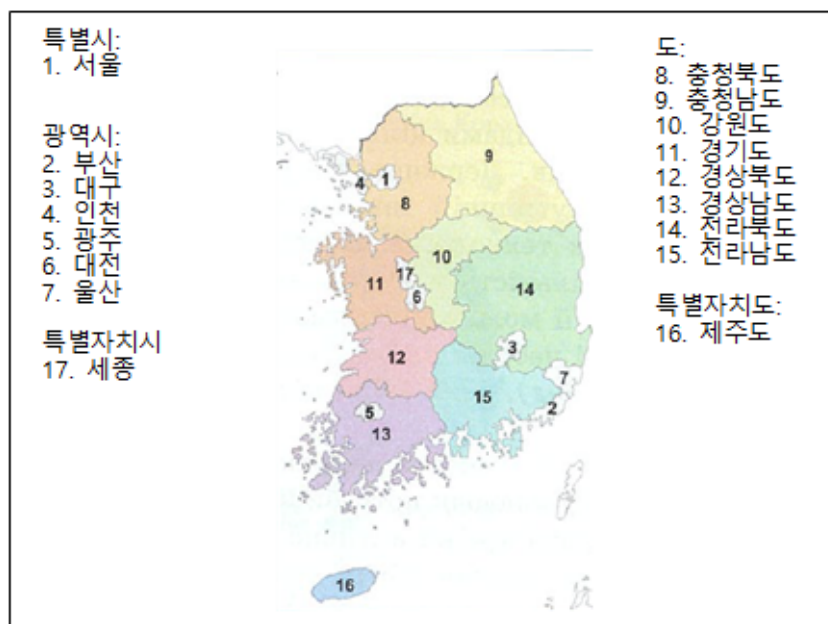


그림 107. 대한민국 행정구역 지도

경제.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에 자부심을 느낀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부족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GDP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과 인도 다음 4위이고 1인당 GDP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일본과 UAE 다음 5위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산업화 시작 후 수출주도경제로 바뀌었다. 경제의 부문별 구조에 따르면 한국은 몇 년 안에 산업화 후기 경제 단계로 진입할 산업 선진국이다 (그림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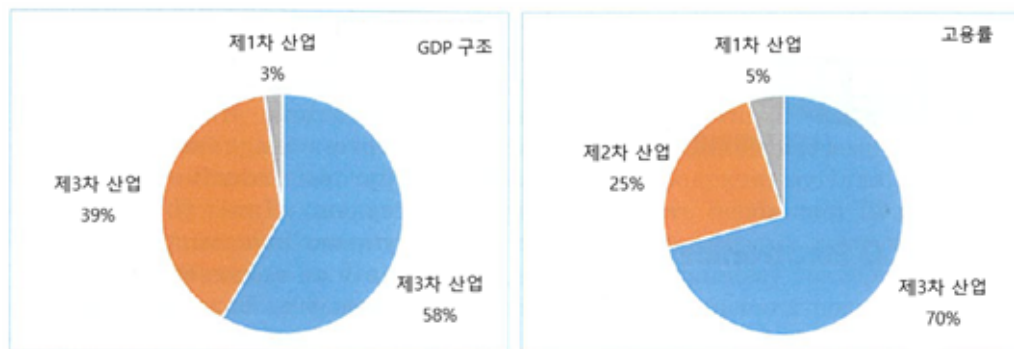


그림 108. 대한민국 경제 구조

제3차 산업인 관광과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1990년대에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대중 음악이 아시아에 수출된 다음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현상을 '한류'라고 한다. 한류는 한국 관광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관광객 수는 1,75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는 관광 분야의 위기를 일으켰지만 팬데믹 이후 관광업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다.

자본 축적과 유리한 사업 환경 덕분에 금융, 통신, 보험 등 서비스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동차 생산국 중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 등 기간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4위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한류의 세계화

‘한류’(K-wave)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상을 말한다. 한국 대중가요(BTS, Blackpink), 영화(기생충, 오징어 게임)와 드라마의 열풍은 아시아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북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대중문화 외에도 K-beauty, K-game, K-food 등으로 한류는 확산되고 있다.

세계 기록

PSY(싸이)의 유명한 연대급 노래인 “오빠 강남 스타일” 2022년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조회수 4.5억 건을 달성했다.



그림 109. 대한민국 대기업 로고

제2차 산업. 기계공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 중 하나이며 한국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한국의 첨단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주요 산업 생산품은 반도체, 전자제품(마이크로칩과 마이크로회로), 통신장비(특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등이 있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기술의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 외에 철강 생산, 정유와 미용 산업도 많이 발전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 대표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고, 자동차 생산 분야는 현대자동차와 KIA자동차가 있다.

제1차 산업. 천연 자원의 부족으로 대한민국 일차 산업은 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비교적 발전되지 못하였다. 시멘트 공업에 원료로 쓰는 석회석 외에 텅스텐, 흑연과 고령토와 같은 천연 자원이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이다.

농업은 주로 국가의 내부 수요를 충족시킨다. 쌀, 야채와 과일 등 농업 분야와 어업,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국제 경제적 관계. 대한민국은 국제 경제전 관계의 선도적인 국가이다. 수출액으로 세계 10위, 수입액으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초소형 회로, 자동차와 부품, 선박, 석유제품, 사무 자동화 장비이고 수입 품목은 초소형 회로와 석유, 천연 가스, 석탄과 같은 것들이다. 대한민국은 산업에 사용하는 원료와 소재를 대부분 수입한다. 주요 경제 파트너들은 중국, 미국, 베트남과 일본 등이 있다 (그림 110). 3차 산업은 관광뿐만 아니라 운송, 비즈니스,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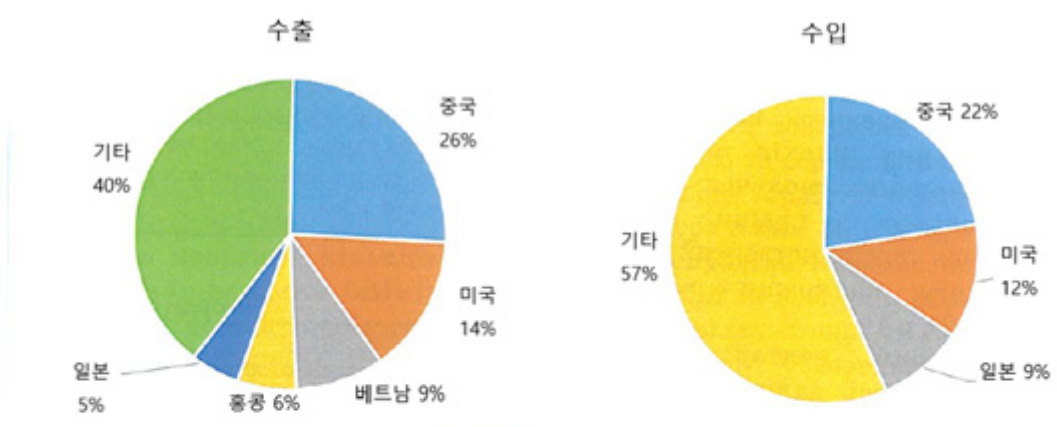


그림 110. 대한민국의 수출입 구조

우크라이나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무역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 첨단 무기 또한 주요 수입품목으로 우선시하게 되었다.